

밭에서 키워 노인의 식탁까지

： 공공급식을 이용한 경로당 먹거리 적절성 보장 방안

애벌레

길하경·김예은·방병철·여승희·이수영,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요약

우리는 노인들이 각자도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싶었다. 노인의 고립을 막을 사회적 지원을 고민했고, 세세하게는 노인의 식사라는 현장에서 대안을 찾으려 했다. 이에 노인들의 ‘먹거리 적절성’을 고려하여, 밭에서 잘 자란 다양한 채소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노인들의 식탁에 오르는 방법을 고민했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식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식사를 직접 차리는 경로당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더 많은 노인들이 안전하고 다양한 식사를 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점심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의 안전한 식사를 위해 풍부한 양이 제공될 가능성 역시 찾아야 한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경로당과 농가의 직거래’가 있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경로당과 개별 농가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은 복잡한 일이다. 그래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내에 ‘경로당’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생각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 자원 조달 과정의 수고를 덜 수 있다. 유성구에만 197개의 경로당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또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활용해, 유성구청과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잇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제안이다. 더 많은 노인들이 신선한 제철 채소를 즐길 수 있고, 공급될 농산물 전체의 양이 일정한 수준이 될 것이기에 농가 역시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경로당의 식문화 개선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경로당 공공급식’을 도입한다면, 노인이 열악한 식사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아, 이들의 먹거리 적절성이 잘 지켜지고 먹거리 복지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노인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	2
2. 노인의 건강과 ‘고립’이라는 위험.....	3
3. ‘함께’ 밥먹는 노인들.....	4
4. 노인들은 건강하게 식사하고 있는가?.....	9
5. 대전의 노인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는가?.....	11
6. ‘직거래’와 ‘학교 공공급식’이라는 실마리.....	12

7. '경로당 공공급식'이라는 새로운 필요와 구조.....	16
8. 나오면서: '경로당 공공급식'의 효과.....	18

1. 들어가면서: 노인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

유엔에서 명명하는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일 때를 얘기한다.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라 칭한다. 현재 한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가 진행 중이며, 이제는 유소년 인구보다 고령의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진 상황이다.¹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17.5%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초고령사회로 가기까지 일본이 10년, 이탈리아가 18년 걸린데 비해 한국은 가파른 속도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2046년에는 일본을 넘어서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노인의 빈곤율은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37.6%에 달했다. 2016년 43.6%에 비해 빈곤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지만, OECD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2020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제일 높으며 전체 인구 빈곤율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개발연구원, 2023). 이러한 빈곤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더 큰 문제는 노인의 고립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경제적 위기가 있더라도 사회적 관계망의 존재는 노인 빈곤을 감소시키지만,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는 빈곤한 삶의 개선을 어렵게 만든다(권혁철, 2019). 즉, 노인의 고립은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며, 그들의 삶을 위협하게 만든다. 실제로 '2022년도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른 결과 독거노인의 비율은 늘어났으며 사회적 고립도는 2019년 27.7%에 비해 2021년 34.1%로 증가한 추세이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전의 독거노인의 수는 61,525명이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14,663명에 이른다. 점점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늘어나는 노인의 수만큼 커져버린 빈곤율, 노인의 고립 문제는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큰 문제를 가지고 왔다. 노인은 나이가 들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고, 심리적·정신적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¹ 김나경, "한은 "초저출산·초고령화 지속시 2050년대 역(逆)성장 확률 68%\"", 파이낸셜뉴스, 2023.12.03, <https://www.fnnews.com/news/202312031258111517>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서 사회를 구성한 이들을 위한 보편적인 정책을 내야 한다. 한국사회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곳이다. 우리 젊은 세대는 하물며 다가오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 결국은 노인이 될 것이다. 지금 노인들이 경험하는 생활은 우리의 미래 생활이다. 현재 노인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이며, 노인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하는 공동체적 과업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삶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과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려 한다.

2. 노인의 건강과 ‘고립’이라는 위험

노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며, 경기불황과 개인주의의 확산 및 자녀 수의 감소로 독거노인의 수와 고독사는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노인의 우울도 치솟고 있다. 2020년 조사한 ‘노인실태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노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노인은 44.8%, 나쁜 편이라 생각하는 노인은 17.6%로 통계적 사실로 보았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의 비율이 더 높다. 하지만 이는 지역별·계층별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동부노인보다 읍면부 노인일수록, 중위소득 및 가구소득이 낮은 노인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노인은 만성질환을 1개 지닌 노인이 29.2%, 2개를 지닌 노인은 27.1%로 평균적으로 1.9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이 56.8%, 24.2%, 17.1%로 노인의 건강은 여러 질병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우울에 관련해서도 전체 노인의 13.5%가 우울 증상을 지니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과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우울 증상이 높게 나타난다. 고립도 노인에게 꽤나 치명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은 가족과 분리가 되면서 외로움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이 발생한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가족, 친인척, 이웃, 지역사회)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권혁철, 2019)하며, ²사회적 관계망의 접촉, 상호관계의 수량적 측면에서 접촉이 줄어든 것을 외로움과는 다른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정의한다.³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생활의 만족도 등에 광범위한

² 권혁철. "빈곤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과정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19.

³ 하범만, 김지순, 김선호. (2023).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고립과 우울의 연속다중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10)

영향을 주며, 고립에 의한 노인의 우울은 현재 한국에서 만연한 노인 자살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잘 드러나는 순간은 식사를 하는 때다. 최근의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청년층에서 만연히 퍼진 1인 식사, 일명 ‘혼밥’은 노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⁴ 남편과 사별 후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진 노인들은 오래된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거르기 일쑤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실제 노인 7명 중 1명은 하루 세끼 모두 혼자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연구에서 혼밥을 하는 경우, 혼밥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외로움과 스트레스, 우울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류한소, 이민아, 2019; Kim, Lee, & Lee, 2020; Kwak & Kim, 2018; Wang et al., 2016).

이렇듯 노인은 다양한 질병과 우울,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개선되어야 할까? 우리는 앞에 사례와 함께 독거 빈곤 노인의 사회적 고립 완화 가능성을 제언한 보고서를 통해 노인의 식사와 식습관에서 해결의 실타래를 찾기로 한다. 만성질환과 식이와의 관련성 선행연구에 의하면 만성질환의 예후는 좋지 않으며 질병이환율을 높이므로 노인의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박유경, 이연주, 이상선, 2012; 정민재 등, 2018)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한 식단으로는 언급되는 것은 지중해식 식단으로 통곡물, 생선, 채소 및 과일이 풍부한 식단이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⁵

하지만 노인의 현상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분절된 인간관계로 소집단 중심의 금전적이고 개인주의적 공동체(소준철, 2016, 48쪽)’로 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인즉슨 노인의 가족 형태가 바뀌었으며, 자식이 있지만 부양받을 수도 없고, 사회보험 자격요건에 달하지 못해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생활이 부단히 많아짐을 의미한다. 결국 노인이 처한 생활에서 이들이 맞이하는 기아의 문제와 열악한 식사 환경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지, 이들의 먹거리

⁴ 박광식, “젊은이만 혼밥? 노인도 혼밥…식사불량에 우울증까지” KBS 뉴스, 2023.12.0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2402&ref=A>

⁵ 문혜리. "한국 대전 지역 성인의 우울증 관련 식사요인 및 영양소 섭취 분석." 忠南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23.

적절성(food adequacy)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들이 지닌 만성질환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해 노인들의 식사와 식문화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3. ‘함께’ 밥먹는 노인들

“혼자 먹으면 대충대충 먹고 아무래도 맛이 없어.

반찬이 없어도 여기 와서 먹으면 젓갈에다가 먹어도 밥이 맛나(농민신문, 2023).”

현재 노인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을까? 경험적으로 노인들은 대개 (1)자가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2)경로식당이나 식사(밑반찬) 배달 서비스와 같은 공공급식을 이용한다. 또한, (3)마을의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다. 우선 (2)공공급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2005년부터 경로식당,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통해 결식 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경로식당은 무료급식사업 수행단체와 연계하여 운영되는데,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을 급식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20인 이상(읍·면 지역은 10인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지원 가능하다.

식사(밑반찬) 배달서비스 또한 무료급식사업 수행단체와 연계하여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이 주 대상이다. 식사는 노인의 건강·영양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밥, 국, 밑반찬, 죽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이용 노인이 가정식처럼 느끼도록 보온을 유지하고 부패방지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등 급식품에 대한 영양 및 위생이 잘 관리되고 있는 편이다(보건복지부, 2023). 하지만 공공급식의 대상은 주로 기초

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 재가 및 독거노인으로 한정돼, 실제 혜택을 보는 이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⁶.

이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들은 (3)마을의 경로당에 모여 함께 식사를 만들어 먹는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28.1%가 경로당(1주 평균 3.2일)을 이용하며, 이용 이유 중 하나로 ‘식사서비스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62.5%로 나타났다⁷.

한국에서 경로당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신축·정비되었다. 1970년대 후반 전국 단위의 노인 단체가 조직되어 ‘노인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1978년부터 아파트에 경로당의 설립을 의무화함으로써 그 수가 증가했다. 현재 <노인복지법> 36조에 따르면,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한 유형으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된다.⁸ 이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체육회 등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연계를 통해 경로당에 여가·건강관리·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다시 말해, 경로당은 노인들이 자치적으로 여가생활을 즐기고,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사회 활동의 장이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고, 1989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경로당’이란 명칭이 공식 용어로 채택됐다(소준철 외, 2016, 57쪽). 현재 정부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⁹. 서울시 OO경로당의 경우,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58%, 서대문구에서 42%를 지원하여 매달 35만 원을 수령한다. 이 중 임원진은 각각 10만원 씩을 남자방과 여자방에 부식비로 지급한다. 한편 양곡비는 중앙정부에서 10%,

⁶ 2020년 1년 간 경로식당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 노인의 11.4%로, 이 중 9.2%가 일주일에 적어도 1회 이상 경로식당을 이용했다.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의 경우 전체 노인의 3.8%가 이용했으며, 이 중 일주일에 적어도 1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2.9%다(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⁷ 1, 2순위 중복응답으로 분석하여 전체가 100%를 초과한 결과를 보인다.

⁸ 노인복지법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일부개정).

⁹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시에서 52%, 서대문구에서 38%를 보조하여, 한 포에 43,340원인 백미 20kg짜리 총 6포를 상반기/하반기에 나눠서 각각 3포대씩 총 120kg을 지원한다(소준철 외, 2016, 80~81쪽).

그럼 경로당에서는 어떻게 식사를 할까? 경로당을 즐겨 다니는 노인들은 주로 평일 점심 식사를 함께한다. 서울시 OO경로당 여자방의 경우 식사 당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한 달 중 10일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경로당 식사도우미 노인이 맡고, 나머지 기간은 식사하는 인원 내에서 2인 1조로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맡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밥과 찌개는 1인당 각각 하나씩이고, 반찬류는 주로 2~3가지 정도로 접시에 놓고 같이 나눠 먹는다. 식사 후에는 많은 사람이 포트에 물을 끓인 후 믹스커피를 타서 후식으로 마시는 풍경이 연출된다(소준철 외, 2016, 79~80쪽).

이처럼 노인들은 혼자 또는 함께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들의 식사를 뒷받침하는 데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일정 정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은 동네마다 위치해있고 조건에 제약없이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기에, 가장 많은 인원을 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따라서 접근성이 쉽고 보다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식사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례 1] 중국의 '커뮤니티 식당'과 유형



중국 전역에는 현재 6,000개 이상의 다양한 커뮤니티 식당이 있다. 소셜 플랫폼에서 '노인 식당'을 키워드로 검색하고 다음과 같은 댓글이 있다. "커뮤니티의 노인 식당은 정말 싸고 위생적이며, 고기 1개 채소류 2개당 14위안, 고기 2개, 채소류 2개당 16위안으로 특하면 20~30위안짜리 패스트푸드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노인 식당 근처 식당에 가거나 배달을 시키면 보통 한 끼에 15~20위안이다. "노인이 아니더라도 커뮤니티의 노인 식당 가격은 매우 저렴하다."

조사에 의하면 노인 식당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으며 한 끼 가격은 약 10~20위안이며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이 있다. 예를 들어, 광둥의 한 노인 식당은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식사 기준은 식사당 10위안이며, 그중 60~79세 노인은 식사당 8위안, 정부 보조금은 식사당 2위안, 기초생활수급자, 극빈자, 80세 이상 노인은 식사당 6위안, 정부 보조금은 식사당 4위안 이다. 일부 노인 식당은 75세 이상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한다.

"정부 선도, 시장 주도, 경영 자율" "정부 건설, 기구 운용, 자원 통합"

일부 요식업체는 중앙공장을 설립하여 식자재의 조달, 가공, 처리를 책임지고 식사를 중앙주방, 커뮤니티 식당, 가정 식탁으로 단계별로 배달하며 후자는 단순 가공, 가열만 하면 된다.

그렇지만 경영의 지속가능성 난제기, 일부 커뮤니티의 노인 식당은 인근 지역의 노인 수만을 고려하고 커뮤니티의 노인 생활 습관과 소비 수준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노인의 취향과 행동이 불편하여 노인 식당에 가서 식사할 수 없는 것이 지역 식당 운영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집세, 수도, 전기 등의 비용을 감면해 주고 자금 지원을 해주었지만, 여전히 수입이 부족한다(출처: <https://news.cctv.com/2023/09/05/ARTIzYoHthUb5B1H3heTlmmH230905.shtml>).

중국 내 커뮤니티 식당의 유형

1) 유형 1) 베이징 차오양구 시바허난리 커뮤니티 식당

: 베이징 차오양구 시바허난리 단지 내 양로역에도 노인 식당이 있습니다 이 역참을 도급 맡은 것은 한 민간 기업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주변 4개 커뮤니티에서 60세 이상 노인은 총 6,751명이며 현재 노인 10명 중 1명이 식사를 하러 옵니다. 이 식당은 **지방 정부가 장소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감면하며 시장 경제 주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집에 고령자가 있으면 카드를 발급하고 식사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배달 서비스도 있습니다.** 하루 판매량 약 500인분

점심식사	노인이	가장	많다(출처:
------	-----	----	--------

<https://news.cctv.com/2023/09/05/ARTIzvoHthUb5B1H3heTlmmH230905.shtml>).

2) 유형 2) 상하이 커뮤니티 케어 식당

: 여기서는 센터는 식당을 내장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제공합니다. 이 건물은 지역 정부에 의해 건설되었으므로 해당 식당은 외부보다 저렴합니다. 동시에 점심 시간에 **노년층과 직장인의 식사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식사 시간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2층에는 다양한 주민 활동 시설이 있으며, 커뮤니티는 취미 수업을 조직하여 노인 및 주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있으며, 이 건물에는 카페, 꽃집 등의 상가도 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4k2fGDvSza0>).

3) 유형 3) 타이저우시 루차오구 진칭진 렌싱촌 커뮤니티 식당

: 타이저우시 루차오구 진칭진 렌싱촌에는 2786명의 주민이 있으며 그 중 737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렌싱촌은 마을에 남아 독거하는 노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마을급 **재택양로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8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60세 이상 노인은 한 끼에 5위안만 내면 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렌싱촌은 '정부 보조금, 농촌 및 현민 기부금, 자선 지원금, 채소밭 재배금, 노인 지불금, 마을 공동 경제 바닥'의 '6가지 보조금' 자금 조달 모델을 통해 노인 식당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수지 균형을 보장한다.

(https://tz.zjol.com.cn/xw18022/sh18033/202311/t20231117_26452353.shtml).

4. 노인들은 건강하게 식사하고 있는가?

앞선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읍·면부, 여자, 75세 이상의 후기, 무배우, 독거가구, 제1오분위, 기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일수록 경로당에서 식사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놓인 노인일수록 경로당에서의 식사가 그들 삶에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특히나 건강문제를 달고 있는 대다수 노인에게 한 끼 식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사이다.

건강한 식사란 ‘신체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의 의미를 포괄한다.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풍부한 영양소로 이뤄진 다양한 식단 구성은 질병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적인 활동과 관계망을 창출시키는 동력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건강 측면에서 ‘함께 만들어 먹는’ 식사는 ‘주체성’을 가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자발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련의 교류는 공공급식과 같이 단순히 제공받는 식단을 함께 먹는 것 이상의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상의 각종 정보와 고민거리, 재미와 같은 무형의 가치를 나눌 수 있으며, 노인들 간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하여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¹⁰. 뿐만 아니라, 개인적 친목을 넘어 노인들이 시야를 확장하고 생각과 태도에 새로운 자극을 불러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아정체성을 재탐색할 수 있으며, 나아가 또 다른 사회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노인들에게 식사는 중요한 사회적 ‘조건’이며, 당면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노인 문제를 관통하는 전제가 될 수 있다.

그럼 경로당 식사에 문제는 없을까? 경로당에서 위와 같은 ‘건강한 식사’를 하기엔 현행의 정부 지원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식사 인원과 나이에 따른 쌀 섭취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백미만으로는 75일 정도만 충당할 수 있으며, 부식비는 한 끼 5,000원 꼴이다. 이 때문에 OO경로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최대한 “알뜰”하게 밥을 짓고자 하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주민센터와 지역 종교단체로부터 쌀의 부족분을 지원받는다. 부식비의 경우엔 임원을 중심으로

¹⁰ 2016~2017년 ‘한국노인노쇠코호트’(KFACS)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들은 함께 식사하는 노인들보다 노쇠 발생 위험이 61%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그 원인으로 영양결핍과 사회적 고립뿐 아니라, 우울감을 제시했는데, 출근 혼자 식사하면서 생긴 우울감이 영양결핍과 고립을 불러 결국 노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백세시대, 2023).

경로당 회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식생활과 관련한 자원들을 조달해오고 있음¹¹을 확인할 수 있다(소준철 외, 2016, 81~82쪽).

다른 경로당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예산은 지난 해 683억9600만원에서 5.1% 삭감된 648억9600만원으로 편성됐다. 경로당 1곳당 215만원에서 204만원으로 감액된 셈이다(전남일보, 2022). 또한, 서울 금천구는 이번 해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구·시비를 합하여 약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부식 보조금으로 77개소에 매월 10만 원씩 약 9,200만 원을 편성했다. 별도로 경로당 양곡비 약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월 10만 원의 보조금으로 한 달 동안 2~30명의 노인들에게 일주일에 2~3회씩 식사(한 끼 약 2,000원)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에 더해 **식단은 밥과 국, 반찬 2개로 구성되며, 단백질류 반찬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마을신문 금천in, 2023).

이처럼 경로당에서는 부실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식재료를 보충함으로써 점심식사가 이뤄진다. 점심을 함께하는 회원들끼리 약간의 돈을 모아 부식비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로 이루어진 경우엔 이마저도 부담이 된다. 이렇듯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노인들이 양질의 식사를 하기란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실제 부식비 절감을 위해 식재료가 싼 곳을 찾아 구입하며, 식사 이후 믹스커피를 마신다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경로당에서 노인들은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은 식사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로당은 ‘먹거리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볼 때, 경로당에서는 높은 식사 수요에 비해 양곡비와 부식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식사 재료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인들이 질 낮은 식사를 섭취할 우려가 있으며, 저녁 식사의 수요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운영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경로당 식사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수요가 높은 점으로 보아 경로당에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¹¹ "알뜰"하게 써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려는 자세는 기본이다. A는 임원으로서 점심식사 식재료를 구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부식비를 절감하기 위해 식재료가 싼 곳을 찾아 구입한다(소준철 외, 2016, 83쪽 참조). A를 주축으로 경로당 회원 중 일부가 폐지수집에 참여한다. 그 결과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처럼 100~130kg의 폐지의류신발 등이 모이고 그것을 판 돈으로 믹스커피를 구입한다(소준철 외, 2016, 84쪽 참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경로당, 그리고 취약계층 등이 회원으로 있는 경로당에서부터 접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5. 대전의 노인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는가?

노인 경로당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학교 급식과 비슷하다. 그러나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같은 중간 체계가 부재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따라 결식 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의 왕래가 잦은 경로식당을 통해 무료급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을 위해서는 식사배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¹²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사업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통해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급식사업 수행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급식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경로식당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며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20인 이상(읍·면 지역은 10인 이상)이며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지원 가능하다.

유성구의 경우, 유성구노인복지관, 유성실버복지센터 등의 경로식당이 대표적이다. 두 곳 모두 매일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 식단은 아래 표와 같다. 유성구노인복지관은 밥, 국, 반찬, 디저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찬은 2~3개이며, 과일, 견과류, 유제품 등으로 구성된 디저트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¹²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 및 기타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0년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간 식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 노인의 3.8%이다. 이중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2.9%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노인 중 84%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업은 노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월	화	수	목	금
밥	기장밥	흑미밥	검정콩밥	수수밥	보리밥
국	닭개장	황태채미역국	유부팽이버섯미소 장국	배추된장국	김치수제비국
반찬	멸치파리고추볶음, 양배추사과샐러드	숙갓두부무침, 오이지무침	닭봉조림, 건가지볶음, 야채샐러드	소고기숙주불고기, 목이버섯잡채, 세발나물무침	달걀말이, 마늘견과류볶음, 치커리고추장무침
디저트	야쿠르트	하루견과	짜요	떡, 굴	요구르트바

유성실버복지센터는 밥, 국,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성구노인복지관과 비교할 때, 유성실버복지센터는 반찬이 4~5개로 많지만, 과일과 유제품과 같은 디저트가 없다.

	월	화	수	목	금
밥	흑미밥	사골떡국/현미밥	강낭콩밥	잡곡밥	강낭콩밥
국	부대찌개	메밀전병	차돌박이된장찌개	황태감자국	얼큰소고기무국
반찬	돈육메추리알장조 림, 죽순초무침, 돌김자반, 시금치무침	깍두기, 과일샐러드, 오징어젓갈, 배추김치	삼치데리야끼구이, 도토리묵참나물무 침, 시금치나물, 깍두기	제육불고기, 계란말이, 건새우마늘쫄볶음, 배추김치	오징어까스, 미트볼야채조림, 황도샐러드, 배추김치

이러한 경로식당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는 무료이나, 유성구노인복지관은 1,500원, 유성실버복지센터는 4,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즉, 무료급식사업 대상 어르신들에게 경로식당에서의 한 끼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식사 그 이상이다. 노인들은 경로식당에서의 ‘함께하는 식사’로 심리적 안정감 또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로 인해 매일 4천 원의 점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반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게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경로식당은 점심만 제공하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의 경우, 노인들이 개별적으로 먹어야 했다.

6. '직거래'와 '학교 공공급식'이라는 실마리

노인의 식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식사를 직접 차려 먹는 경로당으로도 확장할 방법이 없을까?

위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경로식당의 이용인원보다 더 많은 경로당 이용 노인도 함께 값싸고 안전하고 다양한 식사를 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점심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의 안전한 식사를 위해 풍부한 양이 제공될 가능성 역시 찾아야 한다. 이때 '경로당과 농가의 직거래'를 가능케 하는 건 중요한 전환점이라 생각된다. 경로당과 농가의 직거래를 통한 비용 절감은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재료의 공급을 통해 경로당이 노인의 세끼 식사 혹은 재료가 준비되는 건강한 식사의 보루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첫째로, 제한된 경제적 지원을 추가로 받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로, 노인의 건강을 고려한 영양이 잘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로,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식사를 운영해 우울 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 식사 지원을 넘어 정서 관리까지도 책임지는 식사 체계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위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경로당과 농가의 직거래'가 있다. 이는 경로당과 농가가 중간 유통 업체 없이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식재료 거래를 하는 체계이다. 이를 통해 경로당은 식자재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지원금을 절약할 수 있다. 농가와 직거래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아 영양을 보장할 수도 있다. 또한, 노인은 식욕 및 소화 기능 저하로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로당에서의 규칙적인 식사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해결한다. 나아가 경로당에서 이러한 직거래를 진행함으로써 노인들의 우울증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대전 대덕구의 중리제일경로당의 한 노인은 경로당 식사로 인해 집에서 따로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어 노인들이 행복하다고 한다(중도일보). 경로당에서의 식사가 영양과 함께 따뜻한 정서까지 전달하는 것이다.

게다가 대전시 유성구에만 197개의 경로당이 존재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체계적으로 이 사업이 구축될 경우 대량 계약을 통한 비용 절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경로당과 개별 농가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은 복잡한 일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공공급식제도를 검토해 변형할 필요도 있다. 특히, 공공급식 직거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공급식 체계가 잘 갖춰진 학교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학교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를 넘어 ‘공공급식’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명칭 전환하는 추세다(대한급식신문, 2023). 2022년에 발표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현황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중 11,976개가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경로별 식품비 거래액을 합산하여 추정한 수치에 따르면, 농식품거래소 eaT를 통해서는 약 75%,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약 8%, 나라장터를 통해서는 약 5%, 그리고 개별 업체 시스템 및 수의계약을 통해서는 약 12%의 식재료가 유통되고 있다. 이 중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농산물 공급 시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수의 계약의 경우에는 논란이 많아, 친환경 농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학교에서 주로 수의계약을 통해 농산품을 조달받는다.

교육부 학교급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처의 식재료 유통 유형 중에서 전국 단위 통합위탁형이 48%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부분 위탁형이 22%, 통합직영형이 15%, 행정관리형이 11%로 나타났다. 기타 유형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지역에서 직접 운영하되 행정기능은 구 단위로, 물류는 학교 재량으로 직접 계약하며, 전처리는 대부분 하지 않는 등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기타 3%). 중간 업체의 개입 정도에는 차이들이 존재한다.

2017년,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전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에 대전광역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조직이 신설되었다. 현재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대전광역시청 농생명정책과의 학교급식지원센터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 전반에 관한 정책결정 및 심의 등의 업무가 진행된다. 학교 공공급식 체계에서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역할은 생산농가로부터 식재료 수거를 수거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고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는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수산물 등의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대전시 유성구는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824호의 제18조(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1) 관내 식재료 납품업체의 안전성 검사 품목 시료를 수거. 2)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달받은 시료를 검사. 3-1)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급식학교에 식재료를 공급. 3-2)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자치구 위생과에서 부적합 업체를 지도 및 점검. 나아가 행정처분(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제품 폐기와 회수를 진행하는 과정을 주관하며 급식을 학교까지 전달한다.

더욱이 공공급식은 향후 운영 범위를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행정기관 및 기업(민간)의 급식, 취약계층, 군대, 보육시설 등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내에 ‘경로당’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노인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 자원 조달 과정의 수고를 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용 인원 수 등 경로당 실정에 맞게 부식비와 양곡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로당에서 저녁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좋은 해결책이 되고, 나아가 경로식당이 채워주지 못하는 ‘정서’의 부분까지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였을 때, 보다 효과적이고 경로식당에 결핍한 부분도 채워줄 수 있는 게 이 사업이다. 또한, 대전시는 총 경로식당이 26개이지만 유성구에만 197개의 경로당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사례 2] 중국의 노인 식사 지원정책

1) 노인 급식 서비스의 지원 정책 흐름

: 2025년 말까지 이미 전 지역에서 노인 급식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성은 도시와 농촌으로 서비스를 더욱 확장해야 하며, 아직 일부 지역에서 노인 급식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성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서비스양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말까지 전국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노인 급식 서비스 적용률이 더욱 증가하고 서비스 네트워크가 더욱 개선되며 기본적으로 다양한 공급 패턴이 형성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능력이 강화되고 노인의 식사 편의성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인 급식 서비스의 품질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특히 기업이 노인 급식 서비스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자격을 갖춘 기관, 기업 및 기관의 식당은 노인 급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격을 갖춘 노인 급식 서비스 기관의

경우 규정에 따라 세금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수도, 전기, 가스 및 열 사용에 대해 규정에 따라 주거용 가격을 시행합니다. 규정에 따라 관련 국유 자산 관리 절차를 수행한 후 기관 및 기관의 유휴 부동산을 조정, 임대 및 양도하여 노인 급식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노인 급식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울어진 조치를 취하고 자격을 갖춘 마을 수준의 선린(이웃) 상호 지원 지점, 농촌 행복 센터 및 기타 운반체에 의존하여 노인 식당을 열고 노인 급식소를 설치하는 등 이웃 상호 지원, '중양 가구' 다중 가구 구성, **쌍대** 지원 및 기타 모델을 탐색하여 농촌 노인의 급식 서비스 요구를 유연하고 다양하게 해결한다(출처: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310/content_6911233.htm)

2) 베이징시 옌칭구 내 지원 정책

: 2018년에 '1면제 2보조' 정책이 발표되었다, '1면제'는 마을에서 집과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집단, 기업, 사회단체 및 개인이 **마을급 식탁**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식탁 건설에 참여하려는 사회 각계각층의 열정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정부가 노인 식탁에 대한 건설 보조금 및 운영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 건설 보조금은 식당 건설에 대한 일회성 보조금과 주방 및 기타 장비 건설에 대한 일회성 보조금을 포함하여 실제 지출의 80%에 따라 최대 10만 위안까지 지원되며 운영 보조금은 운영 서비스량에 따라 계산되며 **각 테이블**의 연간 보조금은 최대 10만 위안입니다. 식당 건설 측면에서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관리 시스템은 벽에 설치되어야 하며 주방 건설은 식품 약품 감독 부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계획되어야 한다.

운영 보조금의 신청 조건은 더욱 엄격합니다.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요식업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하고, 노인의 일일 식사 계정을 설정하고, 운영 보조금을 받기 전에 매년 구청이 제3자 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 양을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노인 식탁**의 장기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 보조금 보상 시스템도 구축되었습니다. 식탁을 운영한 지 3년 미만일 경우 운영자는 건설 자금의 2배를 벌금받게 된다.

'1면 2보조' 정책이 도입된 후 올해 9개월 동안 11개의 **노인 식탁**이 추가되었으며 14개의 마을급 **노인 식탁**이 건설되고 15개의 식탁이 추진되고 있으며 건설 후 연간 40개의 새로운 **노인 식탁**이 추가될 것입니다.노인 식탁은 계단식 가격 책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 보호 노인, 어려움 보호 노인, 중점 보호 노인, 일반 보호 노인의 상황에 따라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식탁의 요금을 책정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식탁 운영 보장을 증가시킵니다.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을 수준의 노인 식탁이 제철 야채를 제공하기 위해 헤이한링 마을은 자원 봉사자가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왕중잉 마을은 특별히 야채 정원을 열다(출처: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9/27/c_1123488190.htm)

7. ‘경로당 공공급식’이라는 새로운 필요와 구조

대전광역시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먹거리 복지 사업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사업과 밑반찬 배달서비스가 있다. 이 사업들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수준에서 한정적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그 지원 대상은 마찬가지이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급식 지원 대상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앞서 언급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시설뿐이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과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먹거리 복지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급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조례에 명시된 지원 대상을 제외하고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로당’이다. 경로당은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 대상에 제한이 없어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경로당에 공공급식을 지원한다면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노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경로당은 실제로 경로식당에 비해 양적으로 더 많은 수의 노인을 수용하고 있기도 하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경로당의 수는 191개, 전체 회원수는 6,290명이다¹³. 2023년에는 유성구 경로당의 수가 197개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전체 회원수 또한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성구 내 경로식당의 수는 단 2개이며 1일 평균 이용자수는 2개를 합하여 약 100명 정도이므로 경로당은 경로식당에 비해 유성구에 더 촘촘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이러한 규모적, 양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경로식당 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공공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다양한 노인을 포괄하는 더 타당한 지원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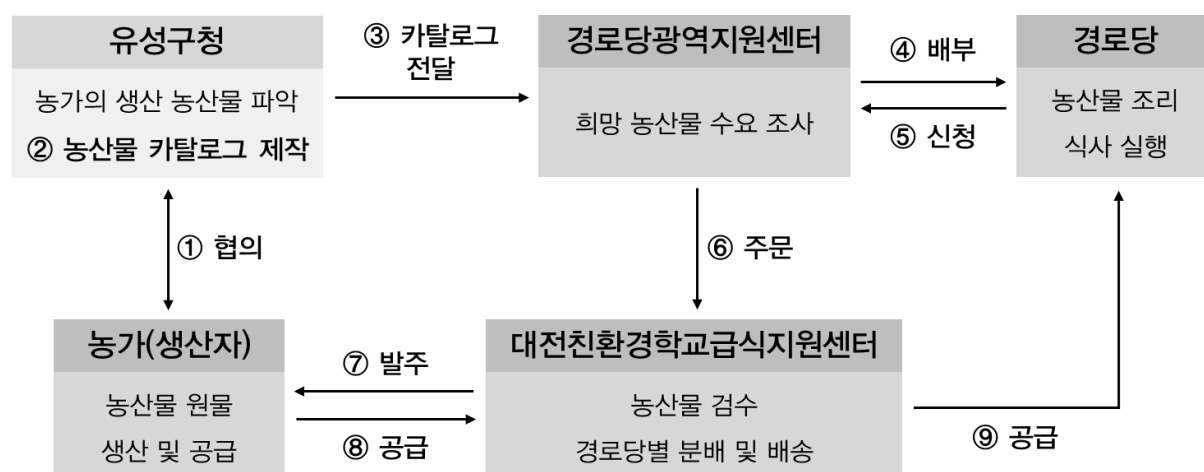
또한, 경로당에서의 식사는 조를 이루어 돌아가면서 차례로 식사를 차리는 식사 당번 또는 경로당 식사도우미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활동하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노인은 경로당에서 식사를 직접 차려 먹는다. 따라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급식이

¹³ “대전광역시 경로당 현황”, 2021.06.03.,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63198/fileData.do>

¹⁴ “대전광역시 경로식당 현황”, 2021.09.27.,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63200/fileData.do>

아닌 식재료이다. 특히, 식재료 중에서 노인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식습관 개선을 고려하여 채소와 과일의 공급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상을 노인으로 하므로 공급될 농산물의 품질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품질이 보장된 농산물 원물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식재료 원물의 공급을 목표로 하므로 경로당에 지원될 농산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경로당이 다양한 수준의 노인을 포괄한다는 점, 경로식당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점, 경로당에서는 식재료 원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로당에 공공급식을 지원한다면 높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경로당의 식탁까지 도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안해 보았다. 이 방안의 핵심은 기존에 학교의 공공급식을 담당하는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데 있다.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공급 대상의 주어를 ‘경로당’으로만 바꿔 생각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경로당 공공급식’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공공급식은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시 전체 학교를 총괄하지만 유성구의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성구청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로당을 담당하는 역할도 필요한데, 이때 등장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이다.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경로당 활성화 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경로당 공공급식’ 체계에서

유성구청,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와 경로당 모두를 잇는 연결 다리의 역할을 할 것이다. 유성구청과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등장이 기존 학교 공공급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경로당 공공급식’은 유성구청이 첫 발걸음을 내딛음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먼저, 유성구청은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을 맺은 생산 농가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 가능한 제철 농산물을 파악해야 한다. 제철 농산물을 분기마다 또는 월마다 파악하여 경로당에 신선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농가와 협의한 농산물을 담은 ‘농산물 안내서’를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카탈로그 형태로 제작하고, 이 카탈로그를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 전달하는 것까지가 유성구청의 역할이다. 다음으로,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전달받은 카탈로그를 유성구 내 경로당에 배부하여 각 경로당의 희망 농산물 수요 조사를 진행한 후, 경로당이 제출한 희망 농산물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에 주문을 전달한다. 이후의 과정은 기존 학교 공공급식의 경로대로 진행된다.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주문서를 받아 농가에 발주를 보내고, 농가는 농산물 원물을 공급해 주면 되는 것이다. 농가로부터 온 농산물은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검수를 거친 후 주문서를 토대로 경로당별로 분배하여 해당 경로당에 배송을 마치면 이로써 ‘경로당 공공급식’이 완성된다.

농산물 원물이 공급되는 것이므로 경로당에서는 본래 식사를 차려 먹던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신선한 제철 채소를 식탁에 올릴 수 있어 식사 질이 향상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유성구청과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초반 역할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학교 공공급식의 경로대로 진행되므로 체계를 정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경로당이 학교에 비해 이용자 수가 적고 ‘경로당 공공급식’은 신청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소량으로 농산물이 공급되어 되려 농산물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거나 농가에 손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경로당에 최소 신청 수량을 정해두거나 실사용자의 100~150%를 주문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해결할 수 있다. 공급될 농산물 전체의 양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문제이기때 이 때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는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8. 나오면서: ‘경로당 공공급식’의 효과

공공급식 지원 체계가 경로당에도 도입된다면, 대전과 유성구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은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대전과 인근 지역의 농가에게도 그 혜택이 확장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지고 명백한 효과는 농가가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과 노인이 안전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가의 경우 산업화 이후로 농업구조가 변화하며 자급률 하락, 고령화 등의 위기를 직면해 오고 있다.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산물시장 개방의 확대와 함께 채소류와 과실류의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김홍주, 2015, 84쪽). 학교 공공급식으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게 된 농가도 있겠지만, ‘경로당 공공급식’이 갖추어져 공급처가 확대된다면 더 많은 농가가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게다가 ‘경로당 공공급식’은 경로당에 채소와 과일의 공급을 목표로 하므로 채소와 과일의 자급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안정적인 공급처가 확대된다면 자연스럽게 농가는 계획생산을 할 수 있게 되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장점도 예상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대전과 인근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처를 선정하므로 지역 농가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고령화 문제는 농촌에서만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이다. 따라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의 건강과 안전, 먹거리 적절성을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분명히 필요한 시기이다. 경로당의 식문화 개선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경로당 공공급식’을 도입한다면, 노인이 열악한 식사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아, 이들의 먹거리 적절성이 잘 지켜지고 먹거리 복지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에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28.1%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여러 노인 복지 시설과 비교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로당이 우리나라만의 문화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경로당이 가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로당의 이용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이용자의 조건에 제한이 없다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경로당의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수준의 건강 상태, 소득수준 등을 가진 노인들을 수용한다. 이러한 특성은 경로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도 ‘경로당 공공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취약계층에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구호나 자선 차원의 지원 수준을 벗어나서, 노인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상호돌봄의 기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경로당 활성화의 방안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만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로당은 짜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식사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 식사를 함께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며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경로당은 여가복지시설에서 나아가 사회적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서 사회적 위치를 확립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첫 단추가 ‘경로당 공공급식’이 될 것이다.